

지역 매 아리

김제시보건소 농촌일손돕기 나서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15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전 직원이 용지면 봉의리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도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하면서 불필요한 포도순 제거, 포도밭 잡초제거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한 포도 재배농가는 일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은 직접 포도 알을 꺾고 크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면서 처음 해보는 포도 수확이었지만 농부들의 소중한 땀방울도 흘려보고 농산물의 소중한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농부들의 구슬땀이 포도알로 산화되어 우리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듯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시민건강을 위하여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시설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16일 월봉동에 위치한 '벽골재밭기' (농장주 이주봉) 농장을 방문하여 딸기 묘 제거 일손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에 방문한 농장은 딸기 재배를 시작한 지 이제 갓 3년차에 접어든 젊은 농업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연로하신 노모와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을 듣고 동장을 비롯한 교월동 직원 10여명이 일손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이게 된 것.

딸기 생산은 늦게는 6월 중순까지 이어지지만, 할 일을 마치고 생을 마감한 딸기 묘 제거 작업은 그 양이 만만치 않다보니 바쁜 일손에 걱정만 하고 있던 차에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일손이 많이 줄었다며 30대 중반의 젊은 농부는 훈훈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공무원들이 당연 업무로 바쁘다보니 자주 시간을 내기는 어렵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짧은 시간이나마 손을 더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주민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동정을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딸기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월봉동 '벽골재밭기'로 방문하시면 신선하고 당도 높은 딸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홍보도 잊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이름 공모

## 완주군, 대상 100만원·최우수 70만원 시상

완주군이 내년 준공되는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명칭을 공모한다.

완주군은 2018년 4월 준공되는 완주군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 명칭을 공모를 실시, 시상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칭공모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취지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서면의 역동성이 반영되고, 지식과 문화향유를 위한 친근감 있는 명칭을 공모한다.

1인 2건 응모할 수 있으며,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lib.wanju.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새 명칭과 제안사를 써서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차 서류심사, 홈페이지 선호도 조사 후 2차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시상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시상은 총 16명으로 ▲대상(1명, 100만원) ▲최우수(2명, 70만원) ▲우수(3명, 30만원) ▲장려(4명, 10만원)을 수여하고 ▲홈페이지 선호도 참여자는 6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 완주읍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선된 명칭은 이서혁신도시 공공도

서관의 정식명칭으로 사용되게 되며, 도서관 완공 전 인테리어, 도서관 대표 이미지(Library Identity)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오인석 문화예술과장은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으로, 지역에 맞는 참신하고 적합한 아름다운 명칭이 나올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691-3에 신축되는 이서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여행과 과학을 특화 주제로 ▲1층 유아·어린이자료실, 북카페, 민원센터 ▲2층 종합·디지털자료실, 공부방 ▲3층 강당, 문화강좌실, 동아리방 등이 들어선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이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 완주군, 재난 현장 대응능력 훈련

### 16개 유관기관·단체 합동

완주군이 재난발생시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행기반 훈련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대규모 지진발생 후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완산소방서, 완주경찰서 등 16개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토론 및 현장훈련을 지난 15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가 재난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은 오전부터 토론훈련을 통해 지진재난에 대한 초동조치,

사고수습 등 재난대응 체계 점검하고, 오후 4시부터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지진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다.

완산소방서, 완주경찰서,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등 16개 기관·단체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차량 등 장비 27대가 동원돼 재난대응 현장 점검을 위한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 참석한 고재욱 군수 권한대행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사전에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훈련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향후 긴급구조 및 복구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

### 2018년도 수질검사 항목·검사주기 등 심의

김제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제1회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연2회 개최하는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관리에 관해 심의·자문을 하는 기구로



김제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수질전문가, 소비자단체, 시의원, 학교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17년도 수질검사결과 공표와 2018년도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와, 김제시 상수도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개최하였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17년 자체 수질검사를 시행한 수도꼭지수 17개소와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시설 7개소에 대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심의·공표하였고, 2018년도 수질검사 지점선정, 수질검사 항목 및 검사주기 등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수돗물 검사결과와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방안에 대한 자문 등 김제시 상수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보건소,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최근 도내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는 5~6월 경 첫 환자가 발생하여 8~9월에 집중 발생한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사망률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김제시 보건소는 주민이 어패류 관리 및 조리 시 주의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보건소는 어패류는 5°C 이하로 저온 보관하며 85°C 이상 충분히 익혀 먹고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힐 때는 10분 더 익혀 먹도록 당부했다.

또한 어패류 조리 시 바닷물을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 전 사용할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며, 다룰 땀 장갑을 착용한다.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만약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24시간 내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를 형성한 후 점점 피부가 괴사하므로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당부

김제시(민원소통과 과장 안홍순)는 16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 시민과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시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만으로 온라인상(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중계약이 불가능하고,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한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해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피해를 방지할 수 있

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우대, 등기수수료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바로 처리되어 행정기관을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부동산 거래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김제시는 시스템 도입 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민홍보 및 공인중개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홍보에 총력을 다 한 바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시스템 가입 독려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활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